

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(3)

- Ⅰ. 지난 10년간 중국경제의 회고
- Ⅱ. 중국경제의 과열을 알리는 신호
- Ⅲ. 베이징올림픽 이후의 중국경제
- Ⅳ.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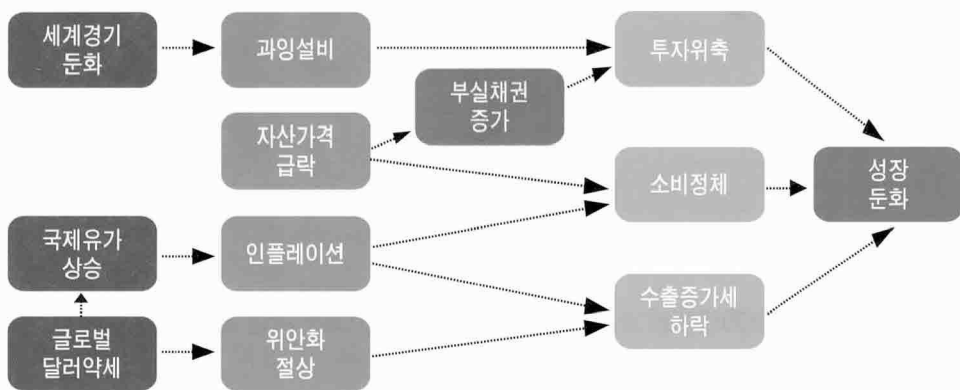
출처 : 삼성경제연구소

Ⅲ. 베이징올림픽 이후의 중국경제

■ 성장, 물가, 자산가격, 투자 등을 통해 과열상태임이 확인된 중국경제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 감속성장이 불가피

- 감속성장의 수준을 가능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구성요소인 투자, 수출, 소비, 정부정책 등으로 세분해 점검할 필요

〈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향방 〉



1. 고정투자

■ 2009년 건설투자는 올림픽 특수 소멸,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둔화될 전망이다

- 2001년 이후 베이징의 고정자산투자 붐이 중국 전체로 확산되었듯이 올림픽 이후 베이징의 경기위축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
- 부동산 가격 하락 부실자산 증가 금융기관 채권 부실화 대출기피 투자위축
 - 자산유동화증권, 부채담보부증권 등 금융상품의未발달, 미흡한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인해 은행의 부실위험성이 매우 큰 편
- 농촌 및 서부개발 관련 건설투자도 노동력 부족으로 힘든 상황
 - 1990~2007년간 농촌인구는 1억 1,388만명 감소



- 설비투자 부문도 2009년에는 조업률 하락, 과잉투자에 대한 조정 필요성과 채산성 악화, 수출 둔화 등으로 위축이 불가피
 - 고유가, 임금상승,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

2. 수출

- 중국의 수출여건도 세계경제가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악화되는 조짐
 - 세계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선 2008년 상반기 무역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11.8% 감소했고, 6월 무역흑자는 전년동월 대비 21.7% 하락
 - 세계경제성장률(PPP 기준) : 5.0%(2007년) → 4.1%(2008년) → 3.9%(2009년)
 - 물가상승, 임금인상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, 위안화 평가절상 등으로 수출경쟁력도 악화
 - 2008년 6월말 위안-달러 환율은 6.86위안으로 2008년에 들어서만 절상폭이 6%를 초과한 상태
- 2008년 1월부터 新노동법과 기업소득세법을 시행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이 대폭 축소되어 세계의 저가품 공급기지로서의 장점도 약화

-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되고, 외자기업과 중국기업에 대한 동일 법인세율(25%)을 적용하며, 근로자와 세 번째 계약 시 무기한 계약, 퇴직금의 기준 강화 등 노동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됨
- 2008년 1~5월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액은 2,569억달러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동기 대비 2.4%p 하락(공급기지로서의 위상약화)

3. 소비

■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의 소비는 중국정부의 기대만큼 늘어나기는 어려운 실정

- 중국정부는 '위안화 절상 및 긴축정책' → 물가안정 → 실질소득 증대 → 구매력 확대 → 소비증가'의 흡수환을 기대
- 그러나 大前提에 해당하는 물가안정이 흔들리면서 실질소득이 줄고, 수출감소는 근로자의 해고증가로 이어져 구매력을 약화시킬 가능성
- 특히 자산가격 하락으로 야기된 금융시장의 불안조짐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
 - 향후 6개월 후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기대지수가 2008년 5월 97로 10개월 연속 기준치(100) 이하

■ 평균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가운데 실질GDP 대비 가처분소득과 가계의 소비지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

- 실질GDP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2001년 36.4%에서 2007년 33.2%로 3%p 이상 축소
 - 경제성장률에 대한 소비기여율 : 43.4%(1998년) → 10.8%(2006년)

〈 중국의 실질 GDP 대비 가처분소득 및 소비지출 비율 〉

(단위 : %)

구 분	2001년	2002년	2003년	2004년	2005년	2006년	2007년
가처분소득/GDP	54.9	55.0	53.2	51.2	50.6	49.5	49.7
소비지출/GDP	36.4	37.5	36.3	34.8	34.5	33.5	33.2

자료 : 중국통계연감

4. 종합판단 : 2009년 경제성장률을 8.1% 둔화

■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경제를 판단함에 있어 중국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

-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3가지의 시나리오로 예상 가능

▶ 시나리오 ① : 경기과열 억제와 물가안정에 초점을 둔 현재의 긴축기조를 지속

■ 중국정부는 2008년 5차례에 걸쳐 지급준비율을 17.5%까지 인상

■ 이 경우 2009년 경제성장률은 7.2%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

- 세계경기 둔화로 2009년 순수출 증가율은 2008년에 연이어 감소하고, 소비증가도 자산가격 하락, 구매력 약화 등으로 인해 6%대로 둔화

▶ 시나리오 ② : 급격한 경기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기조는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(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)

■ 최근 중국정부는 이를 '일보일공(一保一控)정책'이라고 지칭하면서 베이징올림픽 이후 경기급랭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

- 외자 선별유치정책의 유예 가능성, 위안화의 절상속도 조절 (상반기 6.5% → 하반기 3% 내외) 등이 예상

■ 이 시나리오 하에서 일정 수준의 수출 및 투자확대 정책을 펼칠 경우 2009년 경제성장률은 8.1% 수준에서 연착륙할 전망

- 중국정부는 경기급랭에 따른 실업률 상승, 저소득층의 불만 고조 등이 체제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
 - 전국인민대표회가 2007년과 2008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년 연속 8%로 제시할 정도로 8% 경제성장을 마지노선으로 인식
- 급격한 투자위축을 막기 위해, 기술이전 효과가 있는 외국인자본만을 유치하겠다는 '외자선별정책'을 일정 기간 유예할 가능성



- 수출증치세(부가가치세) 환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
- ※ 수출증치세 환급제도 : 품목별로 0%, 13%, 17%씩 부과하는 수출품에 대한 부가세를 일정 부분 환급하는 제도로 완급률은 업종별로 상이
- 중국정부는 수출장려를 위해 2008년 8월 1일 방직 및 의류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11%에서 13%로 인상



▶ 시나리오 ③ : 경기과열과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, 기존의 고도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한 투자확대책 등을 실시

-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서부지역 개발 가속화 등 대규모의 경기진작책을 추진할 경우 9% 이상의 고성장 예상

〈 2009년 중국경제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망 〉

(단위 : %, 전년 대비 증가율)

구 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(E)		
				긴축 (확률 15%)	소극적 부양 (확률 60%)	적극적 부양 (확률 25%)
경제성장률	11.1	11.9	9.8	7.2	8.1	9.6
소 비	7.6	7.2	7.0	6.8	7.0	7.4
고정투자	17.6	16.1	14.5	9.0	10.0	12.0
순수출	11.2	10.0	△5.0	△5.0	0.0	5.0

주 : 1. 2007년의 경제성장률 이외의 소비, 고정투자, 순수출의 증가율은 미발표인 관계로 자체 추정
 2. 각 시나리오의 확률은 중국정부의 정책성향과 정책조합,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

▶ 다음호에 계속